

▲ 사진은 지난 4월 30일(화) 서울대에서 열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노래페 '새벽'의 노래공연 '비리케이드'의 한 장면
(사진: 사회사진연구소)

지난해 말부터 눈에 띄게 두드러진 정권의 문화운동 전선에 대한 관심이 91년 상반기까지 그 수위를 겨우 높여지면서, 일금부쟁 시기를 맞아 활발한 전개되어온 한 노동자문화운동 또한 예상외로 대적인 단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6일(금)부터 오는 5월 11일(토)까지 예정되어진 '노동문화예술제'에 대한 다양한 단위양상이 보여지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동문화예술제', 풀준비한 노동자 문화운동단체들은 문화공간을 불어나는 출발과 수 배려는 상황에서 관객동원과 기획·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동원을 많은 이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에서도 최근 들어나고 있는 노동자 문예운동은 과거 문계적으로 드러났던 그 수준을 넘어 노동자와의 생활을 극복하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주구하며 다양성을 확득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노동자 문예운동은 정치변화의 예고는 첫째, 각 부문별 운동에서 노동자의 생활정서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며 주제로는 노동자 노래와 노동, 노동문화예술제 등에 대한 다양한 단위양상이 보여지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임토론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주성 발현의 기폭제 분임토의

소모임 중심의 분임토의는 학생회 강화의 기초

심상분석

토론의 내실화와 참여확대 방안모색 필요

자주적 학생회의 기본토리라 할 수 있는 분임토론은 본교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의 실효율을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과 학우들의 참여가 시급히 요구된다.

3·4·5월을 거치면서 등록금 부정이나 그밖의 학내 외 출입 시장에 대한 학생회의 의견수렴과 이를 실행화 위해 여러차례의 과학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과학회장들이 지적하듯이 과학회나 축구단은 참여하는 인원수는 대부분이 일정하고 그나마 나오는 사람 또한 고정되어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회회의 구성은 학번 만족이나 그 구성원도 다중다기하나 예비 또는 복학생, 여학생, 취업준비생 등 이런 다른학부로 인해 현장을 찾았던 학우들은 배제되는 양상이나 이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욕구와 방식도 각각 다르다. 이를 학생회는 학내의 토론회에 결속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바로 분임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쟁취이다.

이러한 외래내 토론회와 실상에 대해 과학회장을 알고 있는 청해천(동양·이란이3)군은 「평상시에는 15~20명정도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며 지난 5월1일(화)의 경우 40명정도가 참가되었지만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보다 많은 학우들을 참여할 유도하여 학우들의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분임토의의 박사의 외래결집의 양대로 활성화된 것은 89년 노동현장에서 비롯된다. 노조운영에 있어 조합원들의 자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몇몇 간부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8~12명의 분임조를 형성, 분임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실히 발 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여 그 모임에 참여하지기 쉽다. 즉 민주주의 의를 담보하는 제도가 학식으로 강조될 때 학우대중의 자주 참여가 어려워지므로, 구성원 모두가 주제에서 적극적, 동등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견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견이 전체의견으로 떨어지기 쉽다. 즉 민주주의 의를 담보하는 제도가 학식으로

영방식의 도민이 「자주적 학생 회」 전선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학생회에도 긍속히 전파되며 기초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의 자주성

마지막으로 분임토의는 반드시 전수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회도 이를 선전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학생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관심을 끌어내리고 이후 사업과 일정과 같은 정부와 학교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7년 학원민주화를

위한 힘의사랑에 언급되어 이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의해 제기되었다는 중구구민회의 대회 분임토론과 같은 이유로 중구구민회 단체에서는 기기적인 주제가 명화치 않고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소극적이며 불

분명하여 물을 빛낸다.

87년 학원민주화와 정부에서 발표된 힘의사랑 「89년부터 서양어문대학의 2기 단체(서양 대·동구구민회)」 분리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향에 학생회는 데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해야 할 일에 비록 학생들은 분임토의를 본인에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어 이후 사업과 일정과 같은 정부와 학교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용인대학교

에서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빛낸다.

88년 10월, 학생회로 이

로부터

동구구민회

<p

5월의 하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산 자여 그대는

백골단·전경 해체 및 공안
통치 종식을 외치며 시위
대들이 거리곳곳에서 평화
행진을 전개하였다.



계속된 양심선언

5월4일(토) 연세대에서 나윤성의 경에
이어 서울시경소속 박석진 일경도 양심
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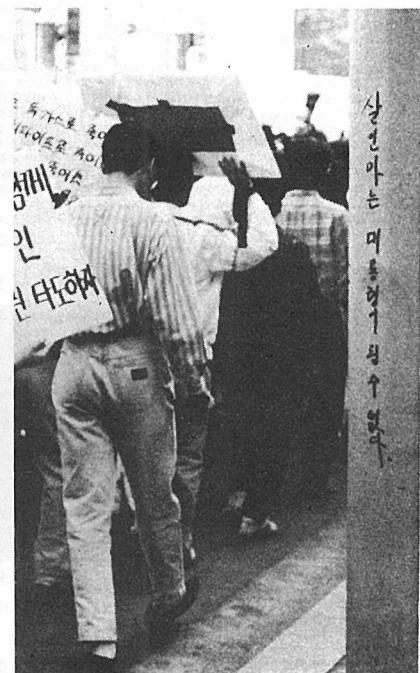


무장해제

백골단·전경 해체의 날인 지난 4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
인 전경이 무장해제 되었다.

살인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경희대 학우들과 함께
본교 이문캠퍼스 학우들이
청량리역까지 평화행진을
하였다.



불타는 폭력정권—6공화국

지난 4일(토)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는 시민,
학생,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백골단 해체 및
고(故) 전세웅열사 추모집회」를 기렸다.



물러섬없는 평화선봉대

고(故)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평화행진
에도 폭력진압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판 걸프전

평화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는
밤늦게 까지 계속되었다.



4천만 민중의 철퇴

평화시위에 대한 최루탄 난사가 계속 되자
한 시위자가 페퍼포그워에 올라가 각목으로 내
려치고 있다.